

정부기관소식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하절기 가축방역 일제 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6월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고, 하절기를 맞이하여 축산농가에서 방역활동이 저조해 지는 등 취약점이 나타남에 따라, 2014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획득 신청을 앞두고 구제역·AI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사유는 최근 구제역·AI가 2년 이상 발생하지 않아 농가의 경각심이 약화되고 하절기 일부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취약 사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방역 활동을 독려하고,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축산 관련 차량에 의해 가축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축산관계자 차량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관계자 차량등록제 등록율이 현재 63% 수준으로 이번 집중점검 기간인 8월까지의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 전체 축산관계자 차량등록대상 65천대 중 41천대 등록 (등록율 63%)

이번 점검은 중앙 정부점검과 지자체 점검으로 구분하여 방역 취약농가(구제역 백신접종 등)를 사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한다.

○ 농식품부·검역본부(중앙기동점검반) 합동점검 : 9개반 18명

○ 지자체 자체점검 : 시·도에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주요 점검사항은 i) 소독 실시, ii) 사람·차량 등 출입통제, iii)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vi)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실시 등 전반적인 가축질병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아울러 축산차량 등록률 제고를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같이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점검결과, 소독 미실시 및 구제역 백신 미접종 등 방역의무 위반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역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①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② 써코 백신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③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불이익을 주고 ④ 질병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특별기간(10~5월)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거나 소독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사진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에서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 홍보물을 20만부 제작하여 배포하고,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조치뿐만 아니라,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역 투입 예산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하절기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것에 맞추어 구제역 및 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축산 관계자 중 해외여행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및 여행객에 대한 국경검역 홍보캠페인을 수시로 실

시하기로 하였다.

* 홍보내용 : 구제역·AI 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및 축산물 반입 금지

전국 공항·만에 대한 하절기 국경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취약점이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칫 가축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구제역·AI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풀지 말고 100% 백신접종 실시·소독·차단방역 생활화, 의심가축 발견시에는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는 등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고, 5일 동안은 국내 축산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 항생제 사용량 2년 연속 최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 박용호)는 전국 14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한국동물약품협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결과에서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이 '01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2년 축산용 항생제 전체 사용량은 약 936톤으로, '01년부터 사용량을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11년(956톤)에 이어 2년 연속 1,000톤 이하로 '01년에 비해서는 약 41%가 감소하였다. 이는 '05

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 감축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항생제 종류별로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가 '01년 약 752톤에서 '12년 약 282톤으로 약 63% 감소하였으며, 설파계 항생제는 '01년 약 237톤에서 '11년 약 102톤으로 약 57% 감소하였다.

또한, 축산물 생산량 대비 사용된 항생제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1년에 육류 1,000톤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항생제량은 '05년에 비해 소고기는 0.57톤에서 0.21톤, 돼지고기는 0.92톤에서 0.55톤, 닭고기는 0.63톤에서 0.29톤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가축에서의 항생제 내성률(대장균 기준)은 축종별·항생제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사용량이 가장 많은 테트라사이클린의 내성률은 돼지 및 닭에서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테트라사이클린 내성률은 돼지에서 '05년 96.0%에서 '12년 75.5%로 약 20% 감소하였으며, 닭에서는 '05년 92.0%에서 '12년 78.5%로 약 13% 감소하였다. 반면, '01년 이후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페니콜계 항생제인 클로람페니콜과 제3세대 세팜계 항생제인 세프트오퍼의 내성률은 증가하고 있어, 이들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HACCP 적용농가 확대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축산농가의 위생·사양 관리를 개선하고 수의사 처방제의 조기 정착 및 항생제 사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여 신중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아울러 축산농가 및 관련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축산분야에서의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지정 시험·검사기관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집중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총 125 곳) : 분야별로 식품(65곳), 축산물(35곳), 의약품 등(12곳), 의료기기(13곳) 시험·검사기관이 있으며, 매년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점검대상은 총 39곳(전체 대상 기관 125곳)로 분야별 '12년도 매출액 상위기관을 우선 선정하였다. 식품위생검사기관 22곳, 축산물위생검사기관 10곳,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4곳,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3곳이다. 점검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식품위생검사기관 5곳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3곳 등 총 8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공시험(Blank Test) 미실시(1곳) ▲규정된 검사방법 미준수 및 지정사항 변경 미신고(1곳) ▲부적합 결과 지연 통보 등(1곳) ▲검사원의 무교육 미실시(1곳) ▲검사기간 미준수(3곳) ▲신고한 검사수수료 미준수(1곳) 등이다.

처분 유형별로는 공시험 미실시 등으로 검사 업무 정지 대상이 3곳(식품위생검사기관 2곳, 축산물위생검사기관 1곳), 검사원 의무교육 미실시 등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5곳(식품위생검사기관 3곳, 축산물위생검사기관 2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대상 이외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내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 식품·의약품등 시험·검사기관 점검 부적합 기관 현황

| 구분 | 기관명 | 소재지 | 위반사항 | 행정처분(예정) |
|---------------|-----------------|-----------|----------------------------|----------|
| 식품위생 검사기관 | 다산생명과학원(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 필요한 공시험(Blank test) 미실시 | 검사업무정지 |
| | (주)에코바이오코리아 | 경기도 부천시 | 규정된 검사방법 미준수 및 지정사항 변경 미신고 | 검사업무정지 |
| | 영웅생명과학원(주) | 경상남도 양산시 | 검사원 의무교육 미실시 | 시정명령 |
| | (주)한국시험분석연구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 검사기간 미준수 | 시정명령 |
| | (주)산업공해연구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 검사기간 미준수 | 시정명령 |
|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 (주)웬디바이오 | 경기도 성남시 | 검사기간 미준수 및 부적합 검사결과 지연통보 | 검사업무정지 |
| | 중앙생명과학원(주)대덕연구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 검사기간 미준수 | 시정명령 |
| | (주)한국시험분석연구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신고 검사수수료 미준수 | 시정명령 |

» 농촌진흥청

가축분뇨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활용법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축산농장에서의 축종별 가축분뇨 배설량과 퇴·액비화방법, 가축분뇨 자원화 표준설계도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가축분뇨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ias.go.kr/envi)를 통해 지속·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가축분뇨 퇴·액비화방법의 설치·운영방법이 수록된 가축분뇨자

원화 표준설계도, 가축분뇨 관련 업체와 관련 시설에 대한 업체소개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의사결정지원 서비스에서는 축종별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와 가축분뇨 자원화방법 등이 제시돼 축산농가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축종별 축산농가에서 매일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발생량을 사전 예측함으로써 농장 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운영방법 등을 사전에 검토해 봄으로써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자원화가 가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환경친화축산 농장선정에 사용되는 심사항목이 제시돼 농장 스스로 농장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가진단프로그램이 설정돼 있다. 표준설계도에 들어가면 각 축종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적정용량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그리고 축종별 가변형 축사표준설계도 활용방법이 게시돼 축산농가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체 소개코너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관련기술평가에서 평가된 업체에 대한 정보, 현재까지 설치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 등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사)한국축산환경기계시설협회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처리기계와 장비 가격 정보 등을 자료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한만희 연구사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축분뇨의 생산·자원화와 농경지 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축산농가와 전문가들이 가축분뇨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을 때 가축분뇨와 관련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쉽게 참조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립축산과학원

축종별 폭염피해 가축진료, 사양관리 기술 지원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최근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대부분 30℃를 오르내리면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이번 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가축의 고온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양과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폭염과 정전으로 인한 가축사육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면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사양, 환경, 질병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5개 지원반을 구성해 폭염 피해가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축산 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진료와 사양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기술지원단은 폭염중점관리기간인 9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피해가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인 7월 8일에서 8월 16일까지는 중점기술지원기간으로 설정해 현장기술지원반별로 축종에 따른 합동지원반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폭염 시 가축의 고온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이동이나 교배 등의 작업은 기온이 서늘할 때 실시하고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특히 소 등 큰 가축은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몸에 물을 뿌려줘 체감온도를 낮춰주며, 신선한 물을 언제든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 고온스트레스로 사료섭취량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열량, 고단백 사료를 먹여 섭취량 감소로 인한 영양분을 보완해 주고 비타민과 광물질 첨가제 등을 사료에 섞어 먹이며 소금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비치해 둔다. 소 등 반추가축은

» 정부기관소식

배합사료와 조사료의 급여비율을 7:3으로 조절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해 섭취량 저하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방지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사료가 부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사료조와 자동사료 급이 시설도 수시로 점검해 청결을 유지한다.

사료는 되도록 새벽, 저녁 또는 밤에 주고 조사료는 주로 저녁에 먹이며 조사료는 5cm로 짧게 썰어 주되 되도록이면 벼짚보다는 질이 좋은 조사료를 준다. 축사 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민감한 돼지, 닭의 경우 축사의 정전에 따른 폐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자가발전기 등을 준비하는 등 비상전력 시스템을 준비 해둬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송용섭 과장은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은 사료섭취량이 줄어들고 활동력이 떨어지며, 수태율과 유량 등이 감소하게 된다.”라며, “농장에서는 한낮에 축사 지붕에 물 뿌려주기, 그늘막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축의 체감온도를 낮춰주고 사료섭취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유통분야 HACCP활성화 본격 시동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 8월 13일(수) 대회의실에서 식품·농·축산 전문지 기자단을 대상으로 “원장 취임 1주년(취임일 : '12.8.17) 업무성적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축산물안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접점인 식육판매점 등 「유통분야 HACCP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

조하면서 “지난 6월부터 「유통분야 HACCP활성화」를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여 기준원장이 직접 매주 실적을 점검하는 등 기준원의 전사적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원장은 지난 1년간의 업무추진 성과를 설명하면서 금년도 초부터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축산물HACCP체인(전용망)」 구축사업을 우수축산물브랜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개 브랜드경영체와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축산물 HACCP체인(전용망) 구축 사업이란?

: 사육(농장), 도축, 가공, 운반, 보관, 판매 등 축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全) 단계에 걸쳐, HACCP 지정업소가 생산, 가공한 축산물을 유통시키는 축산물 HACCP관리 시스템

기준원장은 지난 1년간 주요 업무 성과로는 ① HACCP 신규지정 대폭확대, ② HACCP체인 구축 사업 추진 ③ 유통분야 HACCP 활성화 전사적 추진 ④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현장애로 해소 ⑤ 수요자 중심의 HACCP 전문교육 확대 ⑥ 공공기관에 걸맞는 경영시스템 선진화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2단계 도약(D→B)했다고 밝혔다.

먼저 '13년도 신규 지정건수는 1,50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1.1%(1,063건→1,503건) 대폭 증가하였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농장(사료)은 1,066건으로 목표대비 63.6%가 증가하였으며, 유통업은 79건으로 목표 대비 25.5%, 가공업은 281건으로 목표대비 85.2% 증가하였다. 그리고 기준원장은 HACCP 체인(전용망)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축산물의 생산·유통 전 과정에 HACCP

이 적용되고 있으나, 지정업소간 수평적·수직적 유통연계관리 미흡으로 「Farm to Table」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브랜드를 중심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HACCP 제품 유통차별화 기반을 마련하고, HACCP 체인 구축사업을 통해 HACCP지정율을 대폭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HACCP 체인(전용망) 구축을 위해서는 유통분야의 HACCP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유통분야 HACCP 활성화를 위해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11대 유통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식육판매업소 HACCP 지정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식육판매업 HACCP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13.7.25)하여 정부, 국회, 업계, 학계에 식육판매업 HACCP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축산기업중앙회와 MOU를 체결(‘13.3.13)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전기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중이라고 하였다.

이런 전사적인 노력으로 현재 유통분야 지정건수는 62건으로 전년 동기(46건) 대비 34.8%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HACCP 운용 수준 제고 및 현장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장의 자발적인 HACCP 운용능력이 향상되어 농장분야 보완판정 비율(누적)은 ‘13년 현재(7.31) 24.2%로 전년 동기(48.5%) 대비 24.3%p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이어 기준원장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HACCP 교육 확대를 축종별 특성화 교육을 신설 (5회 - 한우3, 돼지1, 닭1)하고, 지방교육을 확대편성(‘12) 28회 → (‘13) 30회) 하는 등

HACCP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올해 4월 HACCP 교육만족도는 3.98점에서 7월 4.28점으로 7.5% (0.3점) 상승하는 등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HACCP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민, 소비자, 지정수요자 등 타깃별로 HACCP 홍보를 적극 추진중이며 올해 중점사업인 축산물HACCP 전용망 구축을 위해 핵심 타깃을 선정, 여론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기준원장은 “취임 이후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도전적 미래목표를 함축한 「비전」 재수립 등 중장기 경영 전략 체계를 구축하고, 워크숍, 토론활성화 등으로 사업추진 체계를 학습·공유함으로써 전직원 참여형 사업추진 체계 구축 및 직원 수용도 제고에 기여한 것이 ‘12년도 경영평가 결과에서 2등급이 상승하는 우수한 성과로 나타났다”면서 그밖에도 고객만족도 제고 추진, ‘노사선진화 기본계획’수립을 통한 노사선진화 및 노사협의회 활성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및 고객만족도 제고, 윤리경영 실천, 남녀 고용평등 기업 수상 등 ‘13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준원장은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지난 1년간 기관의 미래 전략을 세우고 경영혁신의 토대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는 원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혼연일치의 자세로 기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기준원 임직원들은 「우리 모두의 밥상에 HACCP 지정 축산물 공급」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산 냉장냉동식품, 중국 무더위 식혀

중국 여름철 인기 휴양도시인 칭다오에서 한국 냉장냉동식품을 테마로 한 우리식품 홍보 축제가 열렸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의 현지 법인 청도애특물류유한공사는 칭다오 최대 관광성수기이자 국제맥주축제 기간(8.11~25)을 맞아 냉장냉동 식품의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한국산 신선우유 및 바나나우유, 빙과류, 냉동 떡, 면류 등 냉장냉동식품을 중심으로 유자차, 조미김, 조제분유 등 중국시장 인기품목의 시식·시음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음식과 문화”를 결합한 이터테인먼트(Eatertainment) 형태로서 옥외 대형전광판 Korean-food 이미지 광고를 시작으로, 우리 대표 음식인 비빔밥 테마의 “비빔코리아” 난타 퍼포먼스와 함께 우유 카테일쇼, 한국식품 포토존 운영, 한국 왕복 항공권 추첨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높은 집객효과를 보였다.

aT 청도애특물류유한공사 김동묵 법인장은 “한국 농식품이 중국시장에 진입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시장개척의 화두는 로컬마켓 진입확대와 품목 다양화라면서, 현지 최대 관광성수기에 로컬소비자를 공략함과 동시에 여름철을 겨냥한 냉장냉동식품 집중 홍보를 통해 상온 가공식품 위주의 시장에 품목 다변화를 도모하는 등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전했다.

2013년 7월말 현재 한국 농식품은 대중 수출은 72만4천 달러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aT는 향후 중국시장 냉장냉동식품을 비롯한 우리 농식품의 공급 확대를 위해 대형유통체인 판촉전을 비롯한 냉동물류지원 서비스, 한국농식품 TV광고 등 다각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농협중앙회

미래 축산 인재육성을 위해 삼성경제연구소와 손잡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성우)는 8월 21일(수) 삼성경제연구소(소장 정기영)와 축산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외 경제·경영·산업·금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경제전문 연구기관이다.

농협중앙회는 삼성경제연구소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농업인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축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또한, 축산에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기술(CT) 등 이종 산업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기존의 단순생산·가공 중심에서 첨단기술과 문화·관광 등이 융합하는 등 축산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업무협약 체결은 민간기업과 협동조합간의 보이지 않는 벽 허물기의 모범 사례이며, 양 기관은 우선 축산분야 미래인재 육성사업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농협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삼성경제연구소는 전문 강사인력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은 8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미래낙농마이스터교육을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 주관하여 추진했다. 이번 교육에는 축산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젊은 후계 축산인 약 25명이 참가하여 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전무(전 농식품부 제1차관)의 “창의력과 상상력 증진”, 농협 축산건설팀부 남인식 부장의 “해외 선진낙농 경영사례”, 삼성경제연구소 김재운 전무의 “ICT 산업현황 및 미래”, 이 밖에 “후계낙농인 경영체험 사례” 등 다양한 강의를 통해 젊은 미래 축산인재들에게 축산업에 대한 현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

남성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삼성경제연구소와 협력하여 축산업과 이종산업과의 융복합, 6차 산업화 등 축산업의 다변화를 꾀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꾸준한 발굴 육성을 통해 축산업의 저변을 확대 하는데 농협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축산물 보관창고인 코리아냉장의 화재발생지역으로 화재발생일로부터 40여 일간 계속되는 화재연기와 악취로 피해를 입은 마을주민들을 위한 위로의 자리여서 더욱 의미 있고 뜻 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초청주민 모두에게 별꿀(1kg)을 증정하고 방은경로당에는 100만원 상당의 오리고기를 기증하는 등 훈훈한 축산물 情 나눔을 실천하였다.

농협중앙회 남성우 축산경제대표는 “말복을 앞두고 여름철 보양음식인 삼계탕을 이웃 경종주민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훈훈한 정이 넘치는 농촌, 서로 동반 성장하는 따뜻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 情 나눔행사’는 나눔축산운동본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매년 전국 9개 도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 나눔축산운동본부

축산경제신문 옥미영 기자 2013. 08. 09

복맞이 축산물 情 나눔 실천



사단법인 나눔축산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남성우, 이창호)는 지난 8월 7일 경

기 안성 소재 방은경로당에서 인근 경종농가 주민 등 300여명을 초청하여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복맞이 축산물 情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행사장소인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는 지난 5월 3일

